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믿음, 일치를 향한 모험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 현 후 6주일 】

인도 1부 : 김재홍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삶의 고비마다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무탈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때론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이 다시 주님 마음에 접속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선 보잘것없는 것들 속에서 하늘 보화를 보아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시선을 갖길 바라셨습니다. 주님, 주어진 대로 사는 관성적 삶을 멈추고 다시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서고 싶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에게 가슴으로 다가가고 그 가슴으로 꺼져 가는 불씨를 살리는 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 43:18~19 인도자
- ▲ 교 독 문 50. 시편 116편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이재훈 목사
- 2부 응 답 송 찬양대
- 2부 찬 양 38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함께
- ▲ 성경봉독 막 7:31~37 1부: 인도자/2부: 추현영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 독 자
다 합 계

찬 양 I. 기름부으심 마중물찬양대
II. 다 찬양하여라 청파찬양대

말 씬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 특 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안수지 교우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선 우리에게 생기 있게 살라 명하십니다. 깨어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뜨거운 가슴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선 새 일을 이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의 초대를 외면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동참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가슴에 붙은 불꽃이 우리의 일상과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눈물이 마른 시대에

子食於有喪者之側 未嘗飽也 (자식어유상자지측 미상포야)

선생님께서서는 상을 당한 사람 곁에서 식사할 적에 배불리 잡숫지 않으셨다.

子於是日 哭則不歌 (자어시일 곡칙불가)

선생님께서서는 이날에 곡을 하고 노래 부르지 않았다.

- 『논어』 술이

갑작스런 부음에 공자는 예복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섰다. 제자들 몇몇도 뒤따랐다. 친분이 두터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서로 인사 정도는 나누는 사이였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

공자는 부친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세 살 때 떠난 부친의 모습은 희미할 뿐이었다. 다만 어머니를 떠나보낸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또렷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공자는 아버지의 묘를 찾아야 했다. 생전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뒷자리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 공자의 형편을 안쓰러워한 어느 할머니가 조용히 귀띔했다. “방산(防山)에 가면 자네 부친 뒷자리가 있을 거야.” 공자는 할머니가 알려준 곳으로 가 부친의 묘를 찾아냈다. 어머니를 부친과 합장했다. 그는 어머니의 묘를 아버지와 합장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베풀어준 후의를 잊지 않았다. 이웃은 공자의 슬픔을 함께 위무해 주었다.

상가에 이른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예를 표하고 상주를 만나 인사했다. 상주의 얼굴이 앓되어 보였다. 문상객을 맞는 인척의 안내로 빈객의 자리에 앉은 공자는 천천히 수저를 들었다. 상주의 초췌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상주는 나이가 어렸다. 스물은 넘지 않은 듯했다. 17세에 어머니를 잃은 자신의 지난날이 떠올랐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공자의 문상과 애도의 모습이 담겼던 것일까. 그의 마음에 들 어온 공자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타인의 아픈 자리에 숙연히 함께했다. 애도

의 시간, 공자는 먹는 것을 자제했고, 자신이 즐기던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훗날 사람들이 이 구절을 사랑했다. 말을 삼가고 타인의 아픔에 함께하는 공자의 마음을 가슴 깊이 느꼈기 때문이다.

...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에서 이웃의 아픔을 보고서도 아픈 듯한 모습을 한 채 “실제로는 호기심으로 그 아픔을 엿보고 가는 것”이야말로 “죽을 만한 죄”라고 비판한다. 모든 것이 시각적으로 재구성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체는 진실을 은폐하기 쉽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편집된 영상으로 ‘엿보고 가는’ 것에 익숙해졌다. 마침내 고통당하는 사람과 사건은 보는 자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롬12:15)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은 늘 가슴을 울린다. 그러나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얼마나 함께 느끼고 아파할 수 있을까. ...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 또한 이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길 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웃과 함께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 몸”(엡 3:6)임을 경험한 때문이 아닐까. ...

우리 곁에 몸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고통으로 숨죽여 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이들이 없기에 고통 받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측은지심이 없는 위로의 말은 상처와 폭력이 된다.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못한 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요15:35)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흘리신 주님의 그 눈물이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고 치유했으리라. 그분의 눈물로 얼마나 많은 이가 새로운 삶을 얻고 회복되었을까. 눈물이 마른 시대, 주님이 흘리신 눈물을 생각한다.

2020년 12부 찬양대 명단

1부 마중물 찬양대

대장 : 이순용 지휘자 : 한선희 피아노 : 여선행 오르간 : 김수진

소프라노 - 김세진 김수진b김지혜 김현미 나영란 나지선 남선옥 이주희
최혜정 하상애 한상경 (11명)

메 조 - 김애정 남윤경 박해숙 신문희 장혜정 정은영 (6명)

알 토 - 김창숙 안미숙 오현우 이수민 전현선 한지원 (6명)

테 너 - 김신호 박기영 송병찬 심해성 이순용 (5명)

베이스 - 김은중 김진혁 이진호 이돈섭 정병욱 (5명)

2부 청파 찬양대

대장 : 정종삼 지휘자 : 최윤선 피아노 : 서혜원 오르간 : 이상미

소프라노 - 강상연 김명희 박경선 사혜리 오현정 이경희 최형경 홍순복
(8명)

메 조 - 구명자 박성희 송양진 이부곤 이현정 (5명)

알 토 - 김행자 박경원 유지은 이고임 이미경 이현죽 이진선 정옥영
최성애 최윤희 홍선희 홍재희 (12명)

테 너 - 김영호 김예준 박준민 심해성 안길상 이광섭 이치림 임휘성
전영린 정다운 조관행 최형민 (12명)

베이스 - 김근중 김용찬 박규석 변상철 사은기 우윤석 이한립 장원호
정종삼 조항범 (10명)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형은	고혜경	곽새롬	곽정자	구명자	구재원	권혁순	박혜경 ^b	김광일	이부용	김근종
정옥영	김수경	김영순	김유석	김인순	김준호	김지은	김지현	김진우	임미진	김진혁
신다현	김창숙	김은종	김충실	조아라	김해선	김현진	남명진	김애정	마재국	손의나
박기영	박숙미	박창운	허정윤	방종미	배강우	백원선	서혜원	신영옥	신유식	심창현
안현호	우순덕	유경주	유금주	유명호	지성진	윤정득	이건호 ^a	김보민	이국노	김민화
이미휘	이순용	김신실	이재우	임진엽	임찬양	장현희	전찬익	이은자	정성식	정성훈
정영례	정윤성	서효진	조경환	조수아	조순덕	최 숙	최영민	이상미	최옥자	최재욱
이수정	최정우	이윤숙	최 현	하상애	한봉섭	한완식	임정자	허정호	현우영	

감사헌금

곽 인	권혁순	박혜경	김경미	김성순	안지민	김윤수	김일재	나영란	노신후	박성준
박재영	이현정	박지선	박진미	서한이	양귀섭	우윤석	유명호	지성진	유수진	윤영임
이경석	임애린	임채진	이영희	임진섭	최정우	이윤숙	무명 ²			

생일감사헌금

이은혜

녹색꿈헌금

김영호 김향자 안 진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쉼)
1청년부모임	13:30	지하다목적실			
2청년부예배	14:00	청년회실			

교회소식

1. 선교회 : 오늘 오후 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2. 찬양대 임명 : 1,2부 예배 중에 찬양대 임명식이 있습니다.
3. 임원회 :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각 부서는 활동보고 및 계획서를 주중에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회 : 중구용산지방 지방회가 다음 주일(23일) 오후 3시 광희문교회에서 열립니다.
5. 수요성서학당 : 3월 4일 저녁 7:30부터 수요성서학당이 시작됩니다. 김재홍 목사가 <평등과 영원의 복음,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수강을 원하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결혼 : 이형진 씨와 김하은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2일(토) 오후 3:30 아펠가모(광화문)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7. 신앙실천 : 우한 지역의 사람들과 치료를 위해 격리되어 있는 이들과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시 99:1-9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홍
		2부 김기석	윤성중	조항미	이재훈
2월	1부 영접위원	김정우	헌금위원	이부용	
	2부 영접위원	하현철 박재영	한상균 이현순	김해선 최은미	
	2부 헌금위원	곽권희 황현성			
식당봉사	오늘	한양미 이준림 고숙이 정은선 김희숙 추현영 안성호 박재영			
	다음주	박해경 김미선 최희정 백현주 임진엽 유무영 최영민 이국노			
설거지봉사	4여선교회 (오늘)	2여선교회 (다음주)	커피봉사	4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